

## 2025 년 4 월 27 일 "(주님을 아는 지식 9) 교회 안에서" 엡 3:20-21(요약)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영원하기를 비는 바울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바울의 기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도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더욱 듣고 싶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드러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나의 형통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과 목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과 의미 있는 삶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 [2]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영광

바울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했습니다(21 절). 현실의 교회는 때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십자군 운동과 같은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쇼윈도우로서 세상에 사랑과 평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역할로 부름 받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과 분열도 있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을 통해 성숙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과 방식으로 회복하는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 [3] 죄 고백과 의인의 정체성

자연인으로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며, 각자 안에 내적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충만은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의인임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의식과 분별의 정신을 포함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을 밝혀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미숙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보혈의 은혜로 덮인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입니다. 백조가 어릴 때 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다르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갑니다.

바울의 기도, 곧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길 바라는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며(고전 13 장),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현실 속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바울이 연약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길" 선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니까?